

다윗의 이야기를 정치/종교적 propaganda 를 벗기고 읽으면,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.  
(가능한) 선입견 없이 읽을 때,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?

A. 다윗의 정치적 입지 상승과 신학적 지지(sanction)

- 사울왕과 친족/친위대 제거(사무엘하 1-4 장)=> 사울의 아들 이쉬보셋과 군장 아브넬 (삼하 3:37)
- 다윗을 왕으로 추대(사무엘하 2 장). 사적으로는 이미 왕으로 추대된 상태(사무엘상 16 장)
  - 헤브론에서: 유다(삼하 2:4)와 온 이스라엘(삼하 5:3)
  -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김.
    - ⇒ 정치적으로 buffer zone; 군사적 요지
    - ⇒ 법궤를 가져옴(사무엘하 6 장). 상징성=> 하느님의 임재.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만, 동침은 하지 않음(삼하 3:13-14; 6:16-23; 사울의 후손을 남기지 않음)
- 영원한 약속?
  - 다윗과 아브라함=> 헤브론/예루살렘(시온). Cf. 창 14:18-20
  - 사무엘하 7 장=> 다윗 이데올로기. 왕권신학 (삼하 7:8-9=>창 12:1-3)
    - ⇒ 다윗은 하느님(야훼)의 대리통치자
    - ⇒ 예루살렘(시온)은 하느님의 dwelling place
    - ⇒ 고로 다윗과 예루살렘은 영원하다(삼하 7:16).

B. 밋세바 사건과 내리막 길

- 문학적 장치
  - Sandwich technique => 암몬과 전쟁(11:1)—밋세바 사건(11:2-12:25)—암몬과 전쟁(12:26-31)
  - 삼하 13:1 “그 후에”=> 다윗의 모든 대적이 사라진 후, 즉 만사형통의 기회에 왜 이런 일이??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/단서
- 삼하 12:13. 용서가 아니다! (그렇게 읽고 싶을 뿐...)
  - BHS וַיֹּאמֶר דָּוִד אֶל-נָתָן הַטָּאִתִּי לַיהוָה ס וַיֹּאמֶר נָתָן אֶל-דָּוִד גַּם-יְהוָה הֶעֱבִיר הַטָּאִתְּךָ לֹא תָמוּת
  - 개역한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(赦)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
  - 공동번역 "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."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. "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.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.
  - 표준새번역 그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. "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."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. "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.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.
  - KJV/RSV/NIV .... And Nathan said unto David, The LORD also hath put away thy sin; thou shalt not die.
  - AWP And David said to Nathan, "I have sinned against YHWH." And Nathan said to David, "YHWH also has transferred your sin; you will not die."
  - הֶעֱבִיר (창 47:21; 수 7:7; 삼하 12:13; 왕하 16:3; 대하 33:6; 예 8:2)
- 결과: 다윗의 몰락
  - 12 장: 아기의 죽음=> 다윗의 죄를 아이에게 옮김 (대속죄?)
  - 13 장: 암논이 다말을 강간
  - 14-19 장: 압살롬의 반역
  - 20 장: 베냐민족 시므이의 반란

C. 신명기 사관으로 보느 다윗의 행실

- ❖ 정치적 수완
  1. 사울 왕 재임 시,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(사무엘상 16 장). 엄연한 반역 행위.
  2. 블레셋왕 아기스를 섬기며,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우려 함(사무엘상 27-29 장). Cf. 삼상 29:8 참조.

3. 암몬 왕 나하스와의 좋은 관계 유지(삼하 10:1-2). 나하스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(사무엘상 11 장).
4.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자객이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왕 앞에 나타남(삼하 4:8). (다윗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?); 사울이 죽자마다 왕권을 손에 쥘(사무엘하 2 장). 사울의 친족/친위대 제거(이쉬보셋, 아브넬). 요나단의 아들, 르비보셋은 지체부자유(사무엘하 9 장=> 전혀 위협이 안됨).
5. 사울 왕의 후손 일곱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목매어 죽게 내어줌(삼하 21:7-9)=>시므이의 저주(삼하 16:7-8).

❖ 윤리/도덕

1.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행위와, 은닉을 목적으로 우리야를 살해한 행위의 자세한 기록과 그에 따른 신학적 판단(사무엘하 11-12 장).
2. 다윗의 장자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, 다윗이 꾸짖지 않음(LXX; 공동번역 참조; 삼하 13:21b).
3. 다윗의 정의 실현 실패와 압살롬의 반역(사무엘하 15 장).
4. 다윗의 인구조사 실시와 야훼의 징계(사무엘하 24 장)=>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음.
5. 다윗의 노년의 무력함과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(열왕기상 1-2 장).
  - ⇒ 다윗은 솔로몬 후계자 임명 당시,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함.
  - ⇒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(선지자)를 통한 하느님(야훼)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.
  - ⇒ 아도니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합법적 계승자 (삼하 3:2-5)=> 결국 정치적 싸움에서 패배
  - ⇒ 헤브론파/원로공신들이 솔로몬을 중심한 예루살렘파/신진세력에 의해 제거됨. 나단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출생(삼하 5:14). Cf. 삼하 8:18

결론/평가

- ✚ 다윗은 처세술이 뛰어난 왕
- ✚ 보는 눈(신학적 입장)에 따라 달리 해석이 가능. 아브라함-다윗의 귀족/궁중신학

-----  
생각해 보기

1. 힘(권력, 재력, 학력...)을 가졌다는 것은 유혹/죄에 빠지기 쉬움. 어떻게 힘의 남용을 제어할까?
2. 다윗은 성서에서 가장 인간적인—혹은 비인간적—인물이다. 성서(표현)를 통해 얻는 교훈(뜻)은?